

제5차 정기총회 개최

—'88년도 가결산 보고 및
90년도 사업계획·예산심의—

당협회는 '89년도 가결산 보고와 '90년도 사업계획,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제5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용규 회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성원보고에 이어 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회원여러분의 물심양면의 협조에 힘입어 협회가 육성 발전되어 가고 있어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교육사업을 개발하여 협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피력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새한산업(주) 김철중 사장, (주)이원양행 박병설 사장, (주)부경사 오영진 사장, 상지상사(주) 표상기 사장에게 감사한다”고 치하하고 '90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의안 심의에 앞서 협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한일원자력용역(주) 정명조 회장과 중앙기상대 이수웅 사무관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 의안심의에 들어갔는데 '88년도 결산보고와 '89년도 사업실적 및 가결산 승인,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음 의안으로 임원선출에 들어가서 임기가 만료된 감사에 다시 육종철 교수(한양대)와 김용익 박사(한국에너지연구소)가 연임되었고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과거처 한영성 원자력국장과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박현휘 박사가 새로 이사로 선출되었다.

끝으로 방사선이용특별회비 부과(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19차 이사회 개최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단법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제19차 이사회가 지난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임원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이사회를 위하여 11월 3일 임원간담회에서 '9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바 있다.

먼저 성원보고에 이어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89년 10월말까지의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취업규정 일부 개정, 방사선 이용 특별회비,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임원선임의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시험에 대비한 단기강좌 실시

협회는 '89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시험에 대비하여 단기강좌를 '89. 10. 26(목)~10. 27(금) 2일에 걸쳐 한전 남서울전력관리처 강당에서 실시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단시간내에 요점정리와 주요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최종적 총정리를 하였다.

이번 강좌에서는 에너지연구소 김재록 동위원소실장이 원자력 기초이론 서두환 원자로관리 실장이 방사선취급기술기초에 대해서 하정우 방사선안전관리 실장이 방사선해방에 기초를, 원자력안전센터 이재기 방사선전문위원실장이 원자력관계법령이 대해서 강의하였다.

임용규 회장 원자력안전전문위원 위촉

당 협회 임용규 회장은 1989년 10월 27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조순(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과 문제점을 검토하게 될것이다.

토막소식

體毛 방사성동위원소 감별 법정증거로 첫 채택

水原지법형사합의 2부(재판장 柳昌錫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3일 華城부녀자연쇄살인사건 8번째 피해자 朴모양(당시 14세) 살해범으로 구속기소된 尹城汝피고인(22·京畿道 華城郡 台安邑 陣雁里541의 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낸 증거물중 범행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와 尹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별법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증거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체모감정의뢰보고서가 충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증거로 채택했다」며 「모발에서 발견된 방사성동위원소의 함량이 12개중 10개가 편차 40% 이내에서 범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처소식

영광원전주변주민 내년 2월 역학조사

전남 영광 원전주변 주민의 방사능 오염주장 및 무너져 유산 사건과 관련 이지역주민 2천 9백 20명과 원전 3km 외곽의 주민 1천여명 등 모두 4천여명의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가 빠르면 내년 2월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역학조사를 서울대의대 고창순 교수(RI 협회 부회장)에게 의뢰했다.

국내에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해 종합적인 역학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수는 이에따라 역학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20여명을 인선중이며 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등 구체적인 역학조사 및 항목 선택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고교수는 "역학조사의 시기를 될수록 앞당길 계획이지만 주민의 협조도와 전남의대 광주기독병원 등 지역 의료인의 참여도에 따라 다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처는 이번 역학조사를 원전안전성 시비의 기초자료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역학조사반에 지역주민 대표 및 언론계인사도 참여 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과기처는 당초 12월초부터 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연말연시라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인선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조사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 촉진

정부는 2000년대초까지 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원자력핵심 기술의 자립을 촉진하기로 하는 한편 이용확대에 부응, 안전성관리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원전건설기술의 국산화율을 현재 72% 수준에서 오는 95년까지 95%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원전관련 핵심설계기술능력의 확보를 위해 30메가와트급 대형다목적연구로를 자력 설계, 92년까지 건조기로 했다. 또 원자로 계통설계 및 핵연료설계기술자립을 위해 미 CE사, 서독 KWU사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기처는 점차 국내에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원전의 설계 건설 운전 등 전단계에 걸쳐 안전성확보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규제 및 기술지원 등을 전담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키로 하고 관련법의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과기처는 또 원전,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백 12억원의 적립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7천억원을 적립키로 했다.

이밖에 원전 11호·12호에 대한 안전성종합평가와 원전인근주민에 대한 정기검진, 환경감시 및 방사능 방재합동훈련 등도 실시키로 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위원회”설치

과기처는 정부 각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수요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개발(기술공급)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기 위해 관련부처 등의 대표가 공동참여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등을 협의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처에 따르면 특정연구기관육성위원회는 과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경제기획원 국방, 상공, 동자, 체진, 과기처 등 각부처의 차관과 한전, 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사장 및 산업계 교육계인사 등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 동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기관의 설립·재편, 연구영역조정, 공동운영 기준, 연구 개발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또 충남 대덕단지의 균형발전과 특정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없애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회원으로 하는 특정연구기관연합회를 둘 방침이다.

이밖에 과기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기처산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또는 기술지원 등을 요청해올 경우 연구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늘려줄 방침이다.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사단법인 한국비파괴검사학회는 1989년 11월 30일 반도 유스 호텔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9차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제 9차 정기총회에서는 1989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안)과 19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國內消息

관하여 심의 의결 하였으며 이어서 열린추계 학술발표회에서는 Brakhausen noise 를 이용한 용접 잔류 응력측정(한국표준연구소 이 승석) 외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신한과학(주)의 비파괴에 관한 기기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퍼 나갈것은 물론이려니와 원전 건설의 당위성과 경제적 이점을 널리 홍보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90년도 사업계획과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규정의 일부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원사 임직원 원전시찰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회원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매년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산업시찰단 31명이 11월 14-15일까지 이틀동안 고리원자력 발전소 산업시찰을 하였다.

이번 시찰에는 회원사의 중견간부가 대거 참여하여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관한 지식과 서로의 관심사를 교환하는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제46차 이사회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지난 11월 22일 한전본사 11층 회의실에서 제 4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안병화회장은 "반핵 및 반원전단체의 활동과 일부 언론의 보도 경향으로 오늘날의 원자력산업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이때 전원자력계는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우리의 주장을 당당히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 주변 바닷물 수질도 1등급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센터 노재식 박사를 책임자로한 환경영향 평가단은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대한 3년에 걸친 평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7일 발표했다.

평가단은 또 4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고리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수의 영향 범위가 배수구에서 1km 내로 국한되고 주변 바닷물의 수질도 1등급을 유지, 해양생태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연구소 해양연구소 부산수산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리 원전주변 환경영향 평가단은 지난 86년부터 계속 원전가동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왔다.

방사성동위원소수입현황

1989년 10월 01일 부터
1989년 10월 31일 까지

선 일 별	핵 종	수 량(mCi)	금 액
개	I-125	2,926.47957	1,237,648.06
	Tc-99m	79,653.008	62,311.46
	H-3	81.7	11,064.
	S-35	17.25	2,029.
	Ga-67	503.4	5,030.71
	Cr-51	20.	819.
	P-32	72.75	4,631.5
	C-14	6.07	2,785.
	Tl-201	160.	2,911.
	Xe-133	1,340.	504.
	Co-57	.5	395.
	Ca-45	1.	140.
	I-131	460.	4,210.15
	Mn-54	.2	370.
	Cs-137	.2	185.
	Co-60	.2	180.
	Sr-90	.2	185.
	Fe-55	.2	160.
	Ni-63	.2	185.
		소 계	85,243.35757
밀 봉	Ir-192	2,090,000.	68,253.17
	소 계	2,090,000.	68,253.17
총 계		2,175,243.35757	